

美, 겨울폭풍으로 35명 사망...“차·거리 눈더미서 발견”

뉴욕주 버펄로서 사망자 9명 추가...구급차 운행도 마비 눈더미 속 사망자 더 있을듯...180만 가구 정전피해는 완화

혹한과 폭설, 강풍을 동반한 겨울폭풍이 미국 대부분 지역을 강타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 NBC방송은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시작된 겨울폭풍으로 미 전역에서 최소 3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고, AP통신은 사망자가 최소 34명이라고 보도했다.

최대 110cm의 눈이 내린 뉴욕주 북서부 버펄로에서 사망자 9명이 추가 확인되면서 전체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

이로써 버펄로가 포함된 이리 카운티의 사망자는 모두 12명이 됐다. 이 중 최소 3명은 폭설로 응급원들의 발이 묶이는 바람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 나머지 사망자들의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후 5시까지 이리 카운티의 폭풍 관련 사망자 수는

12명”이라며 “폭풍은 파괴적이고, 마치 전쟁터 같다”고 말했다.

버펄로 시내 일부에서는 눈더미가 최대 3m 높이까지 쌓이면서 일부 주택과 자동차가 눈에 파묻혔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로 인해 구급차와 소방차 운행도 마비된 상태다.

마크 폴로네즈 이리카운티장은 “일부 사망자는 차에서, 일부는 거리의 눈더미 속에서 각각 발견됐다. 이를 이상 차 안에 갇힌 사람들도 있다”라며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크리스마스”라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 연령은 26세에서 93세 사이로, 눈더미 속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망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폴로네즈 카운티장은 추정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50중 추돌사고를 비롯한 여러 건의 교통사고와 감전 사고 등으로 10명이 숨졌고, 미주리주와 캔자스주에서도 운전자 4명이 각기 다른 교

통사고로 사망했다. 버펄로주에서는 한 여성이 떨어지는 나뭇가지에 맞아 숨졌고, 콜로라도주에서는 영하의 날씨 속에 노숙자 1명이 사망했다.

플로리다주 탬파에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으며, 웨스트팜비치 등 플로리다 남부에서도 기온이 6도로 내려가 추위에 마비된 이구나들이 나무에서 떨어진다 신고가 잇따랐다.

미 중서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평원 일대에서 시작된 이번 겨울폭풍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큰 피해를 남기고 있다.

항공정보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인 전날 미국에서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모두 3천488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된 데 이어 이날도 1천800편 이상 무더기 결항됐다.

강추위 속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다만 북부 작업이 진행되면서 정전 피해 가구는 전날 180만 가구에서 이날 오후 20만 가구 미만으로 떨어졌다. 현재 메인주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정전 규모가 8만 가구로 가장 크다. /연합뉴스



얼음으로 뒤덮인 레스토랑 강풍을 동반한 혹한과 폭설이 미국 대부분 지역을 강타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사진은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한 레스토랑. /로이터=연합뉴스

中, 성탄절 군용기 71대 대만 주변 무력시위

올해 최대 규모...대만지원 담은 미국방수권법에 대응

중국 성탄절에 대만 주변에서 올해 들어 최대인 군용기 71대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전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중국군 군용기 71대가 대만 주변에서 활동한 것이 포착됐으며 이 가운데 47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또 중국군 군함 7척이 같은 시간대 동안 대만해협 주변에서 활동을 계속했다. 대만해협 주변에서 하루 동안 탐지된 중국 군용기 대수로는 이번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이라고 대만 자유시보가 전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인 지난 8월 5일의 68대가 종전 최대 기록이었다.

이번 대만 주변 무력시위에는 중국 전투기 중 J-16 18대, J-11 12대, J-10 6대, SU-30 6대 등이 동원됐으며, Y-8 대잠기, Y-8 전자전기도 1대씩 가세했다.

이번 무력시위와 관련,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관할 조직인 동부전구 스이대변인은 25일 중국 소셜미디어(SNS) 웹사이트의 공식 계정을 통해 “대만 섬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작전순찰과 연합타격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스이 대변인은 또 “이것은 미국과 대만의 결탁 및 도발 격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며 이번 훈련이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 통과에 대한 맞대응 차원임을 시사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대만에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 달러(약 2조6천억원)씩 융자 방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러 고교생 내년부터 소총·수류탄 등 군사훈련

역사수업서 우크라이나 다뤄...대학도 ‘군사훈련 기초’ 과정 도입

내년부터 러시아 고교생들이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학교에서 소총 등을 다루는 기초 군사훈련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영한 역사 교육을 받게 된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26일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와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크라브초프 러시아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학교 교육 과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교과정에 해당 하는 러시아 내 10-11학년 학생들은 ‘생활안전의 기본’ 교과목에서 러시아제 칼라시니코프 소총을 다루는 방법과 F-1-RGD-5 수류탄 작동 원리, 응급 처치

등을 배우게 된다.

해당 학년 학생들은 ‘러시아 역사’ 수업을 통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을 포함한 2022년도 지정학적 위기에 관한 내용도 교육받는다.

당국은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 정치·사회·경제 속에서 러시아의 중요성과 업적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월 러시아연방 교육과학 감독국 역시 국가가 주관하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 및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통합국가시험’(EGE)에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새 교육 과정 이행을 위해 교과서 및 교구 개발 등에 나설 예정이 다.

러시아 일선 학교들은 내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까지 새 교육 프로그램 이행 준비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 각 대학에서도 ‘군사훈련 기초’ 교육과정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교육 당국이 러시아 국방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학사 및 전문학위 교육 프로그램 등에 반영될 계획이다.

교육 당국은 “해당 교육과정은 비상 사태나 군사적 충돌 등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버스, 다리 아래 강으로 추락 6명 사망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서

스페인에서 버스가 다리 아래 강으로 추락해 6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에서 전날 오후 9시 30분경 버스가 다리에서 미끄러져 40m 이상 아래로 떨어지며 6명이 사망했다. <사진>

63세인 차량 운전자와 여성 승객 한 명은 구출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조 당국은 밤새 폭우로 인해 강물이 크게 불어난 탓에 사망자와 버스 잔해 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날씨 탓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는 알코올과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스트리아 스키장서 눈사태로 10명 안팎 매몰

1명 구조...수색팀 100여명 야간 구조작업 나서

2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의 한 스키장에서 눈사태가 일어나 10명 안팎이 매몰됐다고 로이터가 현지 APA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3시께 레흐 취르스의 프리 스키장에서 발생

했다.

사고 직후 헬리콥터 여러 대와 수색팀 약 100명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1명이 구조됐다.

수색팀은 야간 수색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헤드램프를 요청했다고 구조 당국

이 전했다. 구조 당국 관계자는 “동계 스포츠 애호가들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흐 취르스는 해발 1천400-1천700m 높이 알프스 산맥에 있는 관광지로, 오스트리아 최대이자 세계 5위 규모인 아를베르크 스키장이 위치해 있다. /연합뉴스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후지의료기 PFC-7900



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

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 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7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 플리트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 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

후지의료기 JP-870



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일본 의료가인인증

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 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

사파헬스케어 SF-5100



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이원)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뮤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2중온열 / 스마트 AI 체 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롱 L스프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

사파헬스케어 SF-5000



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뮤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백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